

공 통 문 항

<가> 우리는 세계사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순이 없는 역사가 되도록 억지로 엮어 붙인다. 그 결과 베르사유 조약이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했으며,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느슨한 통화정책이 어떻게 리먼브러더스발 금융 위기로 이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철의 장막이 왜 무너져야 했으며, 『해리포터』는 왜 베스트셀러가 됐는지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와서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물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나중에 가서 그런 사건들에다 ‘의미’를 짜 맞춰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란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인간은 이 세계에 대해 학문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이야기의 형식으로 설명을 들어왔다는 것이다. 신화는 철학보다 더 오래되었다. 이야기 편향(story bias)은 현실을 단순화하고 왜곡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원래는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현상들을 억지로 연결시켜 인과관계로 짜 맞춘다. 특히 매스컴에서는 이야기 편향이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가 다리 위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너진다. 다음날 신문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읽게 될까? 아마도 그 자동차 안에 앉아 있던 운 나쁜 사람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의 이력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자랐으며, 직업은 무엇이었다고. 만약 그 사람이 살아남아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다리가 무너졌을 때의 심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허무맹랑하게도 이렇게 잡다하게 늘어놓는 이야기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리의 상태인 것이다. 정확히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그 다리의 재료가 노화되었던가? 만약 그렇다면 다리의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가? 어쩌면 그 다리는 파손되어 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무엇에 의해서 파손되어 있었던 것일까? 혹시 애초에 부실 건설은 아니었을까? 등등 말이다. 사람들은 추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에는 본능적으로 끌리게 된다. 그리하여 중요하지 않은 관점들에 밀려서 중요한 관점들이 저평가되는 왜곡이 생긴다.

<나>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시청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방송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강력한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청자들의 자율성 상실로 귀결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텔레비전 방송사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력이다. 방송사 경영은 소유주, 광고비를 지불하는 광고주, 보조금을 주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텔레비전 채널의 소유주, 예산에서 차지하는 광고비 비중, 정부보조금의 총액을 모른다면, 텔레비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안다고 할 수 없다.

텔레비전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는 뉴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소식을 알려 주는 일인데, 텔레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사실들을 옴니버스 성격으로 편집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뉴스들은 대개 이견이 없고 동의하는 것들로서, 사람들을 충격과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텔레비전 뉴스는 다양한 일상사들을 강조하면서, 공허하고 사소한 것들로 시간을 때우게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시청률 경쟁에 쫓겨 텔레비전은 사건 사고나 스포츠 기사를 우선시하는 등 점점 더 선정적 신문들의 낡은 기교에 의존한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텔레비전 뉴스의 시작에서 프랑스 축구 대회의 결과나 갑자기 편성된 다른 스포츠 속보, 혹은 정치 행위의 가장 일회적이고 의례적인 면을 다루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그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특히 정치적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자연재해·사건·화재 등 단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을 즐겨 다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사건 사고 중심의 뉴스는 사회적 삶을 탈정치화시키고, 일화나 스캔들로 축소시켜 버리며 (스타나 왕족의 삶은 국내 혹은 세계적인 사건이 됨) 정치 공백화 현상으로 이끌어간다. 말하자면 텔레비전 뉴스는 정치적 영향이 없는 사건들 중심으로 주의를 끌면서 이것들을 극화시키거나 사회 문제화시킨다.

<다> 한 연구진은 2007년 2월부터 3월까지 4주에 걸쳐 미국과 핀란드의 대표적인 텔레비전 방송사 두 곳의 저녁 뉴스 프로그램 유형 및 편성 비율을 먼저 분석하고, 이어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각국별로 무작위로 추출된 18세 이상 천 명의 시민들이었다. 경성 뉴스는 정치, 경제, 행정, 과학, 기술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뉴스로, 연성 뉴스는 유명인, 사람이야기, 스포츠, 그리고 여타 오락성 뉴스로 범주화했다. 이를 다시 국제 뉴스와 국내 뉴스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국가별로 저녁 방송 뉴스를 국제 경성 뉴스, 국제 연성 뉴스, 국내 경성 뉴스, 국내 연성 뉴스로 분류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를 들면, 국제 경성 뉴스 관련 설문은 탈레반이나 프랑스 대통령이 누구인지 묻는 것이었고, 국내 경성 뉴스는 각 국가 공직자를 알아 보는지의 여부나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질문하는 것이었다. 연성 뉴스 설문은 연예인이나 프로 선수와 같은 유명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뉴스 편성 비율 분석 결과, 시장 중심적인 미국 텔레비전 시스템은 국내 뉴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었다. 미국 네트워크 방송사의 뉴스는 방송 시간의 단 20%를 국제 뉴스에 할애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보도되는 사례는 매우 적었고 네트워크 방송 뉴스 시간 내내 아예 국제 뉴스를 다루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핀란드의 공영 방송 채널은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시간 비율로 볼 때 핀란드의 주요 뉴스 채널은 해외 뉴스를 다루는 시간이 미국에 비해 50% 이상 길었다. 핀란드의 공영 방송은 미국의 상업 방송보다 경성 뉴스를 더 많이 보도하고 해외로 시야가 열려 있었다. 경성·연성뉴스 비율 분석 결과, 미국의 경우 경성 뉴스 대 연성 뉴스 비율은 63% 대 37%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 경성 뉴스 대 연성 뉴스 비율은 83% 대 17%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은 국제 경성 뉴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몇 가지 주제에서 미국과 핀란드가 선명한 대조를 보였는데, 예를 들어 미국인 응답자 가운데 62%는 교토의정서가 기후 변화 협약이란 것을 몰랐지만 핀란드인의 경우에는 오답률이 20% 미만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핀란드인은 72~84%의 정답률을 보여 경성 뉴스에 밝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인은 평균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인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낸 분야는 국내 연성 뉴스였다. 미국인 응답자의 90% 이상이 멜 깁슨,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유명인을 알고 있었다.

1. <가>의 관점과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다>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미디어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1000±100자)

계 열 문 항

<가> 가까운 미래 일본에서는 이종 이식이 아주 보편적인 의료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선구자는 유카의 부친이었다. 유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여 장기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부친이 유카에게 돼지의 장기를 계속 이종 이식해 왔다.

‘위, 장, 기관, 동맥, 신경, 뼈, 근육. 내 육체의 거의 모든 것은 돼지로부터 빼앗아 온 것들로 가득 찼다. 심지어 침샘조차도 돼지의 것이다. 나는 언제나 돼지의 침을 삼켜왔다.’

그녀는 학생 시절 같은 반 친구에게 ‘돼지인간’이라고 놀림 받은 것을 계기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녀와 사이가 좋았던 친구는 나쁜 곳을 새로운 장기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유카는 유카라는 ‘인격의 연속성’이 있다고 위로해 주었지만, 유카는 육체 안에 존재하는 내용물들로 인해 ‘돼지인간’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종 이식용으로 인간의 유전자를 조합한 돼지의 장기로 몸의 대부분이 바뀌어져 있다 하더라도, 친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상품으로서의 신체관’을 가진다면, 부분은 어쨌든 전체로서는 유카이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유카는 자신의 육체 안에 존재하는 ‘돼지성(性)’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된다.

‘인간의 심장이 된 돼지의 심장과, 인간의 간이 된 돼지의 간과, 인간의 신장이 된 돼지의 신장과, 인간의 폐가 된 돼지의 폐와, 인간의 대장이 된 돼지의 대장과, 인간의 안구가 된 돼지의 안구와, 인간의 항문이 된 돼지의 항문과, 인간의 피부가 된 돼지의 피부와, 인간의 자궁이 된 돼지의 자궁과, 인간의 척추가 된 돼지의 척추와, 인간의 위가 된 돼지의 위와, 인간의 귀가 된 돼지의 귀와, 인간의 늑골이 된 돼지의 늑골과, 인간의 갑상선이 된 돼지의 갑상선과, 인간의 난소가 된 돼지의 난소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인간은 인간일까?’

이러한 끊임없는 의문에 대해 그녀의 친구는 유카라는 인간의 연속성은 뇌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뇌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한 착각에 지나지 않으며 뇌도 결코 분할 불가능한 기관은 아니라고 유카는 반론한다.

‘인격이란 무엇일까? 나의 뇌 오른쪽 반을 너의 반과 바꾼다면 나는 네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대로 나일까? 인간의 의식의 자리는 뇌의 어디에 있는 것일까?’

더욱이 유카의 대뇌피질의 일부는 생후 6개월 때에 돼지로부터 이식받은 것이다.

<나> 인간은 단지 한 조각 자연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반발한다. 우리는 그 말에 대해 ‘그렇다, 그렇지만’이라고 토를 달고 싶어 한다. 우리 속의 무엇이 그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뇌 신경학자인 토마스 메칭어는 ‘나’를 뇌와 신체의 산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철저히 숙고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그에 따르면 실제적인 ‘자아’ 혹은 ‘나’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단지 신체적·감정적·인지적 상태뿐이다. 우리가 ‘나’라고 체험하는 모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뇌가 만드는 ‘환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나-중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나’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가?

메칭어의 말대로 ‘나’가 뇌의 여러 중추들이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면, 그러한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것은 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메칭어라는 ‘나’인가 아니면 그의 뇌인가? ‘나’가 환상이라는 생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환상적 특성을 꿰뚫어 보는 정신적인 존재로서 고유하게 존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단지 정신 활동을 하는 존재만이 환상과 실재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없으면서도 그것이 없다면 우리 정신이 사라지게 되는 단일한 실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단일한 나'가 단순한 신기루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행위자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다.

<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던지는 물음 가운데 하나이다. 이처럼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물음 속에는 이미 인간이 무엇인지를 가늠케 하는 함의가 있다. 왜냐하면 이 물음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음이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과 그 상황을 분리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인간은 상황에 묶여 있거나 그 자체로 고정적이고 결정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언제나 '열려져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인간은 고정된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 되어감'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인 것이다.

동물들은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대해 물음을 던지지 않으며 그 상황과 하나로 살아간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삶을 유지해 주는 것과 관계해서만 반응한다. 그들의 전문화된 기관은 아주 고정된 외적인 생활 조건에 의존하며 그 생활 조건 내에서만 전문성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도마뱀은 가랑잎의 아주 조용한 소리에도 움츠러들지만 바로 곁에서 발사한 권총 소리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큰 소리와 결부되어 있는 위험 요소는 도마뱀의 환경 속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인간은 전문화된 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환경에 대해 취약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환경에 대해 취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에 적응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은 때때로 환경 조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 '아니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져 놓고 그 혼돈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정체성에 관한 물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게 한다는 점이다.

2.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나>와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유카의 고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000±100자)